

물길

경희대학교 정수진

스물 셋, 취업을 앞두고 진로의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 건축이 좋아 건축공학으로 진학하였지만 막상 몇 년을 배워도 그 우물, 그 자리 안에서 고민만 깊어져 갔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조급함에 휩쓸려가듯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다. 그렇다고 가만히 멈춘 상태로 있을 순 없기에 이것저것 손을 대 보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사실 김종훈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지만 나는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보았다. 궁금한 마음에 집에 돌아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찾아보다 저번 기수의 커리큘럼을 보았다. 학교에서 배우던 수업들과는 다르게 해외 건설시장, 건설과 신기술의 융합, CM 등 현 건설의 큰 흐름부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수업들로 구성되어있었다. 제자리에서 고민만 하고 있던 나에게 새로운 방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평소 건설이라 하면 보수적이고 경직된 산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 날 제4차 산업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업부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전에는 그저 시공, 설계, 관리 등으로 정해진 틀에서만 생각했다면 이번에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융합'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신기술, 프로그램 등을 건설과 접목시키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순히 건설에만 국한된 수업이 아니라 시스템적 사고나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알고리즘을 만들고 다루는 법들도 배우며 건설에 대해 갇혀 있던 시야를 벗어나는 느낌이었다. 당장 닥쳐오는 취업에 급급하다 수업들을 들으니 잊고 있었던 배움의 즐거움이 다시 마음에 차 올랐다.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를 신청했을 땐 오로지 수업에 대한 기대만 했었다. 하지만 막상 몇 주가 지나 마무리가 되어가는 지금은, 수업보다도 차세대 건설리더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친구들을 만난 것이 더 값진 경험으로 다가온다. 현장견학을 할 때 우리 조와 옆 조 10명은 가장 먼 영종도로 배정되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하기도 했고 현장이 너무 멀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정말 친해져 마지막 현장견학 날 전엔 주변 바닷가에서 숙소를 잡아 늦게까지 놀고 수다 떨며 다음 날 다 같이 다시 현장으로 가기도 했다. 현장 또한 큰 프로젝트에 평소 보기 힘든 호텔, 스파, 유흥시설 등을 보기 드문 시공법으로 진행하여 배울 것이 많았다. 모두 한 달 넘게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며 정이 많이 들었다. 이 수업이 끝나면 다시 멀리 떠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지만 계속 인연들을 놓지 않고 훗날 현장에서 다들 언젠가 마주칠 것을 믿는다. 지식을 얻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꿈을 품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아카데미의 숨어있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첫 며칠은 낯선 사람, 수업,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말 천천히 갔다. '6주가 지나려면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깐 지난 사이에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취업, 진로 걱정에 막막한 마음을 안고 시작했지만 사실 여전히 길은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은 갈림길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대해 알아가는 것에 가슴이 뚫다. 어쩌면 이번 아카데미로 더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물길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55명 모두 각자의 물길을 만들어 만날 것이다.